

“나를 일으켜준 진짜 내 모습, 여행으로 만났어요”

난 멈추지 않는다

(4) 포동 작가

‘나는 오늘도 못 자는구나.’ 일요일 새벽에 올린 카톡 메시지를 본 ‘포동’은 다시 커피를 찾는다. 좋아한다고 믿었던 일이 나를 하루에 두 시간만 재울 줄은 몰랐다. 25살이어서 부러먹기 쉬웠고, 여자라서 남자보다 기회가 적었다.

사직서를 냈다. 한 번의 이직과 두 번의 퇴사.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둠 속 텔레비전이 보여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웬지 저곳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화요일 피카캐스트에 연재 중인 ‘날 만나러 가요’의 주인공 포동은 그렇게 비행기 표를 끊었다. 포동작가(필명) 본인의 동남아시아 여행기인 이 웹툰은 평균 조회 수 5만3000여회를 기록했다. 오는 5월 31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친다. 연재 종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포동작가는 “예전의 저처럼 시련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 펜을 들었다”고 말했다.

◆좌절에 움츠러든 퇴직자 세상에 말을 걸다
단 2주 동안의 여행을 위해 고민한 시간은 석 달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우울증은 우울한 생각이 아닌 무력감 때문에 온다는 말을 실감했죠.”

애니메이터로 일한 첫 직장도 여섯 달이 6년 같던 두 번째 회사는 시간과의 전쟁터였다. “처음엔 ‘내 주제에 무슨’이라는 생각에 연거푸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언제 업무 지시가 있을지 몰라 불안했던 마지막 회사가 생각난 거예요. 막상 저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죠.”

작품 속 포동은 막연히 떠올린 ‘원주민’이 아닌 대도시 속 태국인 앞에서 후줄근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자신을 돌아본다. 도피처가 아닌 또 다른 현실에 들어선 포동은 태국과 캄보디아 곳곳을 누비며 ‘바가지’를 당해보고, 동료 여행



- 1 포동작가가 자전적 여행기 ‘날 만나러 가요’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 2 포동작가는 가방에 태블릿PC 서피스 프로2와 드로잉 북, 아이폰 8 등을 넣고 다닌다. 이날 펼친 드로잉 북에는 ‘날 만나러 가요’의 마지막회 구상이 담겨 있었다.
- 3 지난달 29일 합정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포동작가(필명)의 모습을 ‘날 만나러 가요’의 주인공 포동으로 표현했다.
- 4 포동작가가 2016년 2월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작품 속 포동 역시 같은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이범종기자, 포동작가

전쟁같던 회사 퇴사 후 무력감 빠져 2주동안 동남아 여행... 희망 찾아

여행 후 긍정적인 사고방식 얻어 동남아 여행기 웹툰작가로 거듭 시련 겪는 직장인들에 힘 되고파

자들의 도움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해 간다. 방콕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줄 팝콘을 양보했던 현지인이 포동에게 돈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행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포동이 정가보다 비싼 값에 유심칩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공감하며 안타까워한다. “현지인이 팝콘값 요구하는 장면에서 ‘포동이 멍청하다’고들 하셨는데, 실제로는 옆에서 다른 외국인 이 당한 모습을 보고 각색한 거예요. 하지만 유심칩 비싸게 산 건... 네, 제가 맞

아요(웃음).”

외국인과 처음으로 영어로 몇 마디 나는 자신을 뿌듯해하던 포동은 어느새 다른 여행객에게 먼저 말을 건다. 앙코르와트의 추운 내부 관람에 필요한 옷은 먼저 다녀온 노부부에게서 얻어내기도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하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점도 공감 요소다. 포동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다가 다른 여행객들은 상대의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다. 저마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동은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잘 하고 있다(11화)’고 다독인다.

사기꾼인 줄 알고 경계했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상 버스에 타는 식의 유쾌한 반전은 또 다른 묘미였다.

◆착취 거부한 20대 여성 포동에 ‘공감’
무엇보다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포근한 그림체로 풀어낸 회상이

다. 27화에서 포동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캄보디아로 떠나왔는지 떠올린다. 주말 없이 일하다 쓰러진 포동은 상사로부터 따뜻한 위로 대신 ‘책임감 결여’로 질책당했다. 실제 상황이었다. “대표는 제 앞에서 다른 남자 직원을 욕하고는, 저에게 ‘키워주고 싶다’는 말로 희망 고문했어요. 하지만 정작 열매는 대표가 비난하던 그 사람에게 갔죠.” 포동작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실제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대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어쩔 것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말은 프로젝트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기로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혼자 세 명분의 일을 해왔어요.” 2015년 10월, 소진된 친춘이 ‘사용 불가’를 선언한 이유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좌충우돌 끝에 도착한 앙코르와트의 일출을 보며, 포동은 세상이라는 곳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

기로 한다.

반전은 작품 바깥에 있다. 한 뺨 자란 포동작가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높은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안 또 힘들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제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포동작가의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뒤에는 다시 동남아에서 두 달 여행했어요. 광고회사에서 8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고 떠났는데, 첫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추천한 다른 도시들을 다녀왔죠. 여행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여행을 마치면서 하게 됐어요.”

작품 내내 포동에게 도움을 주며 가까워진 남자 ‘상추’씨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저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을 상추라는 남성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응원하신 독자분들은 실망하시겠네요(웃음).”

여행을 결심하게 만든 다큐멘터리 속 앙코르와트도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가 기대한 장면은 아름다운 일출과 그 모습을 화폭에 담은 예술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 보니, 그들은 관광객에게 팔기 위해 앙코르와트는 보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더군요. 여행객의 사진 경쟁도 심했구요. 하지만 그때 썼던 색안경이 저를 끌어내 다행이다 싶어요.”

◆얻은 것은 진짜 내 모습
여행의 수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편견 없는 눈, 웹툰 작가 데뷔다. 무엇보다 가방 하나 멘 채 남미를 시작으로 세계 여행 하는 꿈이 생겼다는 점이다. “친구들이 ‘포동을 너무 귀엽게 그렸’고 놀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저의 우울했던 시기를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힘들었던 시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 제목을 ‘날 만나러 가요’로 정했답니다.”

올해 포동작가의 목표는 차기작 발표다. “장르는 스틸러일지 드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열정페이 같은 ‘n포세대’ 문제도 건드리고 싶어요.”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설 연휴 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

서울시, 16~17일 막차시간 연장
올빼미버스 9개 노선도 정상운행

설 연휴 귀경객이 집중되는 16일~17일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8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막차시간을 연장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시에 탑승해야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버스(강남)·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를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마지막 정류소 정차시각 기준이다.

시는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6일~17일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14일~18일 운행대수를 하루 평균 830대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막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 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5만여 명 늘어난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교통예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공한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자별·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예보는 토피스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제공하는 서비스다. 검색 하려는 날짜의 6일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정보는 12일부터 제공된다.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IC)도 14일~18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다음 날인 19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으로 운영된다. 19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는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와 중앙분리대(총 47곳)에 입간판을 설치한다. 전광판(VMS)을 통해 운영시간 변경정보를 9일부터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토피스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인 4일 오전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배우 김소율 씨(오른쪽)와 남산국악당 한준섭 씨가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124개 전통시장서 제수용품 할인행사

설 명절 맞아 특별 이벤트 진행

서울시가 5일부터 시내 124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은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참여 시장은 ▲종로 광장시장, 동묘시장 ▲중구 서울중앙시장 ▲용산구 후암시장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중랑 동부골목시장, 동원골목시장 ▲성북 돈암시장, 정릉시장 ▲도봉 신창시장 ▲마포 망원시장 ▲양천 경창시장, 목동 깨비시장 ▲강서 송화골목시장 등이다.

시장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범종 기자